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2호 242~256(1999)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일례
—金欽祖(1461~1528) 분묘 출토의 철릭을 중심으로—

李 恩 珠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Case Study of *Chulik* Construction in Early 16th Century
—Based on the Shroud from *Heumjo Kim's* Grave—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目 次

Abstract
Ⅰ. 서 론
Ⅱ. 조선 전기 철릭의 형태와 구성의 일반적 특징
1. 길이와 상하 비례의 변화
2. 소매나비와 소매유형
3. 깃 양식
4. 고름과 고름바대
5. 기타
Ⅲ. 김흠조 분묘에서 출토된 철릭의 구성법
1. 형태와 구성의 일반적 특징
2. 실측 항목별 치수와 구성상의 특징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hulik* in the early 16th century based on the shrouds from the excavated grave of *Kim, Heum-Jo*(1461~1528) is reported in this paper.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general construction methodology found in the shrouds from other graves in early *Chosun* Dynasty and then shows an example of the construction methodology of *Chulik* in early 16th century revealed from a report on *Chulik* from the excavated grave of *Kim, Heumjo*.

This paper finds that there exist at least three different *Chulik* forms according to the ratios between upper portion and lower portion in *Chulik*. The upper portion to the lower portion ratio grows with time. Among the three forms, this *Chulik* of interest falls in the first one of the three forms. This new finding of the chronological evidence for the first category of the three forms provides us the latest chronology for the first category, which is up to the year 1567. This paper also shows that the second and the third categories of *Chulik* in early *Chosun* Dynasty lasted until 1580's and until 1590's, respectively.

Several remarks on construction methodology found in the *Chulik* of interest are also reported in this paper.

Ⅰ. 서 론

본 연구는 1997년 3월, 경북 영주 이산면의 掌隷院 判決事(정3품) 金欽祖(1461~1528)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류 중 단령을 중심으로 고찰했던 단령 구성법[1]에 이어 시도되는 철릭의 구성법에 관한 고찰이다.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어 온 철릭은 고려 중기 원 간섭기 이후 조선 말까지 착용되었던 대표적인 戎服이다. 그간 철릭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철릭의 형태에 대한 시대적 변화나 소재, 색상, 부속품, 용도 등에 관한 연구[2]는 물론, 명칭에 관한 연구[3]와 전파 양상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4]도 있었다. 또한 철릭의 구성법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5]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철릭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현대 의상디자인에 접목시키고자 한 시도[6]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우리의 철릭을 연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중국의 철릭에 대해 살펴본 연구[7]도 이루어졌다.

다양한 각도의 연구와 더불어, 새로이 고려 말기의 요선철릭을 비롯하여 조선 전기의 철릭 유물들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선 전기 묘에서 출토된 철릭 유물에 대한 구성법을 간략히 살펴보고 김흠조 묘에서 출토된 철릭 유물에 대한 보고서[8] 내용 중심으로 16세기 전기의 철릭 구성법의 일례를 제시하고 선행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본 묘에서 출토된 철릭의 복식사적 가치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찰 결과가 유물 복원이나 고증 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조선 전기 철릭의 형태와 구성의 일반적 특징

조선 전기의 철릭 형태는 성종대의 문헌인 ≪樂學軌範≫에 보이는 帖裏, 防衣와 같은 圖像과 그간 조선 전기로 판명되거나 추정된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묘인 李季胤(1431~1489), 金欽祖(1461~1528), 鄭溫(1481~1538), 李仁孫(1477~1543)[9], 丁應斗(1508~1572), 李應台(1556~1586)[10], 順天金氏(임난 전 추정), 李彦雄(임란 전), 洪係江(임난 전 추정), 金德齡(1567~1596) 등의 조선 전기 분묘에서 출토된 철릭 유물을 통해 전기 철릭의 실제적인 형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철릭 유물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전체 길이, 상하 비율, 옆선 길이, 깃 유형, 고름의 크기, 소매 형태 등에서 대체적인 경향 차이가 나타나며 그 외에 주름 유형이나 주름 간격, 어깨 바대, 겨드랑 무의 유무, 고름 유형, 소매 유형 등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조선 후기와 구별되는 주요 부위의 형태변화와 특징을 개괄적으로

1) 이은주(1998a),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金欽祖(1461-1528) 분묘 출토의 단령을 중심으로', ≪服飾文化硏究≫ 제6권 제2호, pp.127-140.
2) 姜淳弟(1981), '帖裏小考',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2호, pp.131-179.
김정자(1984), '帖裏考', 服飾 第8號, pp.57-68.
김찬주(1980), '철릭에 관한 복식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명희(1980), '帖裏'에 關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오창명(1997),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 衣記 硏究(1)', ≪韓國服飾≫ 15, pp.29-64.
이은주(1988),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12(3), pp.363-371.
장인우(1997), '조선시대 철리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pp.389-400.
4) 이은주(1989),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韓國衣類學會誌≫ 13(4), pp.319-329.
5) 朴聖實(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世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6) 徐希媛(1995), '철릭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7) 金美子(1995), '元의 軍服·戎服에 관한 硏究', ≪學藝誌≫ 第4輯,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pp.149-173.
金宣伶(1999), '중국의 철릭에 관한 연구: 元·明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은주(1998b), '金欽祖(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 자료분석'. 榮州市 編,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pp.273-291.
9) 이은주, 李仁孫(1477~1543),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古文化≫ 第52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pp.107-122.
10) 정식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으나 1998년 4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경북 안동시 정상동 소재의 固城 李氏 應台(1556~1586)의 묘에서 수거한 염습의 자료가 있다(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 길이와 상하 비례의 변화

조선 전기 중에서도 전반기의 철릭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130cm 전후 정도로 비교적 긴 길이이다. 상의가 길고 하의가 짧은 衣長裳短形으로 상하비율은 1.2 : 1이었다. 지금까지의 유물에서는 이인손(1477~1543)의 철릭까지 확인된다.

宣祖 즉위년(1567) 7월에 선조의 등극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許國과 魏時亮이라는 明使가 왔는데[12] 그들의 옷은 길이가 짧고 소매는 넓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를 따랐다[13]고 한다. 16세기 후기 철릭의 외형적 변화에는 이러한 외래적 유행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철릭의 전체적인 길이는 10cm 이상 짧아지면서 상하 비례가 1 : 1의 비율(정응두, 순천김씨, 홍계강)을 거쳐 임란 전에는 치마가 상의보다 긴 衣短裳長形이 정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짧아지는 과정에서 겨드랑 아래의 옆선 길이도 짧아졌다(정응두, 이언웅). 그리고 추후 검토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임란 중에 전체 길이는 다소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김덕령).

한편 철릭은 다른 포류의 길이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짧은 편이다. 연산군 11년(1505)에 朝士의 철릭을 답호나 단령보다 짧게 만들도록 하였다[14]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규정이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매나비와 소매유형

초기의 소매는 진동선 나비보다 수구 쪽으로 다소 줄어드는 착수형의 통수이다(이계윤, 김홍조, 이인손). 그리고 선조 초년(1567) 이후에 통수와 더불어 다소 넓어진 두리소매를 확인할 수 있다(정응두). 그러나 임란 중(1593)에는 大小人員의 융복과 속옷의 소매를 모두 좁게 하도록 하는[15] 착수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좁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김덕령).

한편 좌우 양 쪽(정응두, 이언웅)이나 좌측 한 쪽(김홍조, 이응태) 소매를 半袖形으로 처리하여 연결용 소매를 달아서 기능성을 살린 경우도 있다. 반소매와 연결용 소매의 가장자리에 매듭단추를 달아서 소매를 연결시켜 착용하기도 하였다.

3. 깃 양식

깃은 고려말 깃 형식을 이어받은 '목판형 이중깃'에서 후술할 '예각 반목판형 이중깃(김홍조, 이인손)(그림 6)'[16]과 '칼형 이중깃(정온, 정응두, 이응태, 홍계강)'의 과도기를 거쳐 속칭 '칼깃'이라고 불리우는 '칼형 단일깃(이언웅, 이응태, 홍계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임란 전에 이미 철릭의 깃으로 칼깃이 자리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고름과 고름바대

조선 전기 내내 철릭의 겉깃 끝이 거의 오른쪽 겨드랑점에 이른다. 겉고름은 우측 겨드랑 아래의 옆솔기 정도에서 매도록 되어 있다. 간혹 세 쌍이 달리는 경우(김홍조)도 보이지만 대체로 겨드랑 옆선 길이 양 끝으로 소형 고름을 두 쌍 달았다. 두쌍 고름의 상하 간격은 옆선 길이에 따라 좌우된다. 1560년대 말 이후 옆선이 짧아지면서 두 고름의 간격은 상당히 좁아진다.

고름은 현재의 고름 다는 방식과 동일한 '직접부착형'과 고리를 달아 연결하는 '간접부착형'[17]으로 구분된다. '간접부착형'은 조선 후기에는 보이지 않는 형이다. 그리고 임란 전에 이미 넓고

11) 본 연구 당시까지 출토된 자료를 통해 형태 고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 변동되는 내용도 다소 있을 수 있다. 朴聖實(1992), 박성실(1998), 이은주(1998b)의 김홍조 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12) ≪宣祖修正實錄≫ 卷之一 二, 卽位年丁卯七月 ○庚午.

13) ≪增補文獻備考≫ 卷之八十 禮考二十七 章服二 '宣廟初年 許魏明使 所着紗帽直而高 衣短袖濶 舉國效之 笠制亦因而彖高坪狹 至十年間 紗帽頂上微蹲平 衣袖之濶 稍減.(중략).此則國無所令 而自爾如是也.'

14) ≪燕山君日記≫ 卷第五十八 十一年六月 ○戊寅.

15) ≪宣祖實錄≫ 卷之四十二, 二十六年癸巳七月 ○甲寅.

16) 李恩珠(1999),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6.

17) 이은주(1998), *ibid.*, pp.136-137.

긴 고름 한 쌍이 달린 경우(정옹두, 이옹태)도 확인되었다. 남아있는 겉고름의 색상은 대체적으로 자색 계통으로 확인된다.

특히 철릭의 고름바대는 다른 포류에서와는 달리 金線이나 紋緞, 紋紗와 같은 고급직물이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김홈조, 정옹두, 이언옹).

5. 기 타

조선 전기의 철릭 기록 중 '한철릭[汗帖裏]'과 '요선철릭[腰線帖裏]'이라는 것도 눈길을 끈다. '汗帖裏'[18]은 대체로 백저포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안에 입는 소매 긴 철릭이 아닐까 생각된다.

요선철릭은 기록상 세조대(1455~1468)와 성종대(1470~1494)에 확인되지만, 언제까지 착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대체로 중국사신과 여진족, 신하들에게 내린 하사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19].

한편 요선 장식 방법은 이미 고려 말 해인사 요선철릭에서 턱(tuck)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대홍주남요선철릭「大紅紬藍腰線帖裏」[20] 등은 그 명칭으로 보아 바탕색과는 다른 색의 옷감이나 장식선을 요선으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Ⅲ. 김홈조 분묘에서 출토된 철릭의 구성법

1. 형태와 구성의 일반적 특징

16세기 전기에 해당되는 김홈조(1461~1528)의 묘는 현재까지 복식이 출토된 조선 전기의 묘 중에서 이계윤의 묘 다음으로 시대가 올라간다. 따라서 수거된 12점(유물 21~32)의 철릭은 조선 전기 중에서도 초기의 것에 해당된다.

김홈조의 묘에서 출토된 단일 복식류 중에서는 철릭의 양이 가장 많다. 12점의 철릭은 이장 후에 유물 수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의 염습의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단 정3품 당상관으로서 생시에 착용했던 융복용 철릭과 편복용 철릭, 사후 친지들이 보낸 襚衣用 철릭이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실록≫에는 홑[單], 겹[袂], 솜[袂] 철릭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철릭 유물 중에는 이외에 누비[納]도 있지만 본 묘에서는 누비 철릭이 한 점도 수거되지 않았다. 襦철릭 2점(유물 21, 31), 袂철릭 3점(24, 25, 28), 單 철릭 7점이 수거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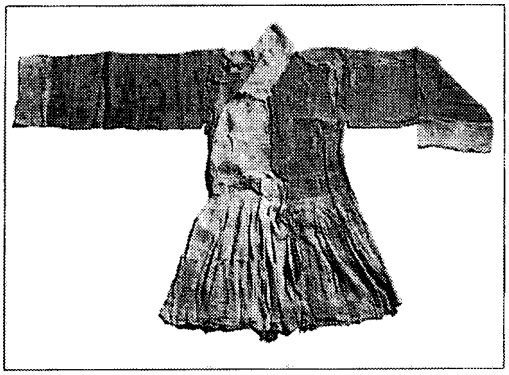
한지를 심지로 사용한 경우가 눈에 띈다. 겹 철릭 중에 한지를 사용한 경우(유물 25)가 있고 솜 철릭 중 한 점(유물 21) 역시 홍계강의 솜 철릭[21]처럼 명주(겉)→한지→솜→명주(안)로 구성하였다. 안감 안쪽에 솜을 놓고 그 위를 한지로 덮어서 마치 한 장의 안감처럼 바느질하였다.

홑 철릭에는 다양한 바느질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등솔기와 겉섶 달린 앞중심선은 0.2cm 두께의 고운 쌈솔이고 나머지 솔기는 대부분 옷감 끝을 고운 박음질로 바느질하였다. 수구나 치마 안단 등은 1cm 정도 시접을 접어서 곱게 감쳤다. 솜이나 겹 철릭의 경우, 각 솔기 끝을 고운 홈질로 바느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등솔기는 0.2cm의 쌈솔 외에 1cm(유물 28), 4cm(유물 25) 정도로 넓은 것도 있는데, 그 시접방향은 右向이 많지만 左向한 것(유물 28)도 있었다.

소재는 廣紬 (유물 22, 23), 絲綿交織(유물 25), 綿紬(유물 21, 24, 31), 綿布(유물 28), 麻布(유물 26, 27, 28, 29, 32) 등이 사용되었다. 겉감이 명주인 경우에는, 다소 거친 명주를 안감으로 사용하였다.

중종 23년(1528)의 '지난 6~7년간 侍臣들이 짙은 홍색 융복을 숭상해 왔다'[22]는 기록을 볼 때, 1520~30년대까지 당상관은 홍색 계통의 철릭을 즐겨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출토된 철릭의 색상은 변색되어 淺淡의 갈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포로 제작된 5점 중 3점은 어두운 빛을 띠는

18) ≪世祖實錄≫ 卷第七 三十五, 三年丁丑五月 ○癸酉, 卷第十五 二十一, 五年乙卯三月 ○壬辰, 卷第十五 二十二, 五年乙卯三月 ○丁酉.
19) 權瑛淑 외(1997), *ibid.*, pp.144~145.
20) ≪成宗實錄≫ 卷第一百十七 一, 十一年庚子五月 ○庚辰.
21) 朴聖實(1992), *ibid.*, p.329.
22) ≪中宗實錄≫ 卷六十二 五十, 二十三年戊子八月 ○丁巳.



<그림 1> 金欽祖(1461~1528) 묘 출토 철릭 (유물 30).

마포와 흰빛을 띠는 마포를 사용하여 색다른 멋을 느끼게 한다(그림 1). 세 점 모두 깃과 겉섶, 수구, 치마 부분에는 흰빛의 마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에는 짙은 빛의 마포를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다른 묘에서는 출토되지 않은 독특한 배색의 철릭이다.

2. 실측 항목별 치수와 구성상의 특징

김흠조 묘에서 출토된 철릭 12점의 대표적인 실측 항목과 직물, 바느질 상태 등에 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12점 중 상태가 가장 양호한 〈유물 24〉 명주 겹 철릭의 실측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울러 제시된 유물의 실측도와 모습은 각각 〈그림 2〉, 〈그림 3〉과 같다.

1) 뒷길이

앞길과 뒷길은 어깨 솔기없이 연결하여 재단하였다. 철릭의 뒷길이는 124~136.5cm(평균 130.3cm)였고 그 중 上衣는 67.5~76cm(평균 71.3cm), 치마는 55.5~63cm(평균 59.2cm)이므로 상하 비율이 1.2 : 1인 衣長裳短形이다. 衣·裳의 길이 차이는 8~16cm 범위였다.

김흠조 묘의 단령 평균 뒷길이(152.6cm)와 답호의 평균 뒷길이(146.3cm)와 철릭의 평균 뒷길이(130.3cm)를 비교해 볼 때, 철릭을 가장 짧게 했다는 연산군대의 규정이 지켜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화 장

실측표(표 2)에는 화장 길이와 화장을 이루고 있는 옷감 폭 별로 나비를 다시 기록하였다.

화장 길이는 92~129.5cm(평균 120cm)였다. 화장을 이루는 연결 폭 수는 옷감의 나비에 따라 달랐으나, 35cm 내외 폭의 옷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 폭이 연결되었다. 특히 수구 쪽은 옷감 반 폭 정도를 사용하였다. 62cm 이상의 광폭인 廣綃의 경우(유물 22, 23)에는 두 폭을 사용하였다. 〈유물 22〉만 왼쪽 半袖形이었고 나머지 11점은 모두 일반적인 長袖形 소매였다. 연결용 소매의 길이는 73.5(11.5+62)cm이었는데, 반소매에 연결용 소매가 이어진 상태에서의 화장 길이는 121cm이다.

3) 진동선과 소매솔기길이 및 수구

진동선 길이를 실측하고 점차 소매나비가 줄어드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연결된 소매통의 치수를 재었다. 진동 치수는 38~44.5cm(평균 41cm)이었는데, 40cm 이상이 8점이나 되었다. 수구는 26.5~37.5cm(평균 32.1cm)의 범위였으며 12점 모두 수구로 가면서 좁아지는 통수였다. 선조 즉위년 중국 사신이 넓은 소매의 옷을 입고 다녀간 후인 1570년대 초 정응두의 묘 철릭 유물에서는 통수와 두리소매가 공존[23]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유물 22〉 廣綃흩 철릭의 왼쪽 반소매는 매듭단추로 연결용 소매와 이어졌다. 어깨선 끝과 소매 배래 박음선 끝에 하나씩, 소매 앞면과 뒷면의 중간에 적당히 간격을 두고 두 개씩을 달았는데, 현재는 암수 단추 각각 하나씩만 남아있다. 반소매 안쪽으로 들어서 암단추를 달았고 연결용 소매 끝 안쪽에 숫단추(그림 4)를 달았다. 연결용 소매가 반소매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이다. 정응두 묘의 반소매 철릭에는 연결용 소매가 반소매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밖에서 덮는 경우가 모두 확인되므로[24] 포개는 방법에는 원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3) 朴聖實(1992), p.166.
24) 朴聖實(1992), p.166.

<표 1> 김흠조(1461~1528) 묘 출토 철릭 유물별 실측치수 비교 (단위 cm)

순서	유물 번호	뒷길이 衣	뒷길이 裳	화장	진동	수구	옆선 길이	뒷품	치마 둘레	치마 폭수	깃 길이	깃 나비	깃 고대	소재 겉감	소재 나비	구성 유형	밀도 (경×위/cm)	유물 상태
1	유물 21	65△	62.5△	?	43.0	36.0	22△	?	?	?	?	12.5	?	綿紬	34.0	솜	30×35/cm	완파
2	유물 22	76.0	60.0	121.0	43.0	27.0	28.0	33.0	249△	4△	98△	12.0	22	廣綃	63.5	홑	32×24/cm	반파
3	유물 23	76.0	60.0	122△	43.5	34.0	26.5	35.0	178△	4△	130.0	14.0	20	廣綃	65.5	홑	38×43/cm	반파
4	유물 24	74.5	62.0	113.5	43.0	30.0	28.0	32.0	390△	12	135.0	12.0	20	綿紬	34.0	겹	20×25/cm	원형
5	유물 25	71.0	62.0	129.5	44.5	34.0	27.0	32.5	448.0	12	122.5△	13.5	20	交織	38.0	겹	27×33/cm	반파
6	유물 26	68.0	60.0	92.0	40.0	36.5	26.5	29.0	402△	13	127.0	12.4	20	麻布	32.0	홑	24×26/cm	완파
7	유물 27	67.5	57.0	96.0	39.0	37.5	25.0	29.5	467.0	14	130.5	14.0	20	麻布	35.0	홑	26×18/cm	반파
8	유물 28	70.0	56.0	112.5	39.0	30.0	30.0	32.0	347△	11△	126.0	12.5	23	綿布	34.0	겹	18×19/cm	완파
9	유물 29	70.0	56.0	108.0	38.0	32.5	27.0	28.0	420.0	12	121.5△	12.0	20	麻布 2	32.0	홑	23×/19cm	반파
10	유물 30	68.5	55.5	118.5	39.0	34.0	28.0	?	403△	13	133△	13.0	22	麻布 2	32.0	홑	20×17/cm	완파
11	유물 31	71.0	63.0	116.5	40.0	27.5	26.5	33.5	423△	12	136.0	12.5	20	綿紬	36.0	솜	31×37/cm	완파
12	유물 32	70.5	50△	112.0	41.0	26.5	28.0	31.0	?	6△	130.0	12.5	20	麻布 2	32.0	홑	21×22/cm	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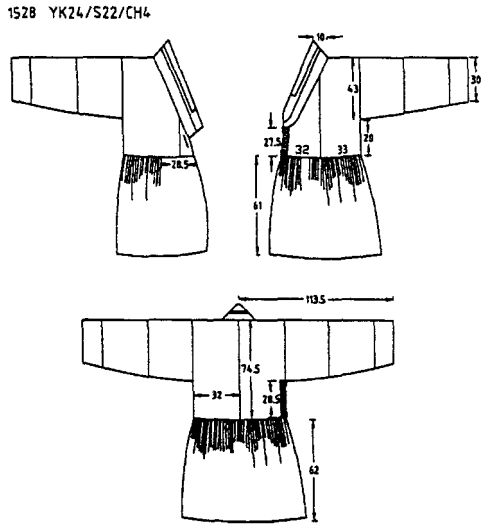
* ? : 실측 불가능한 부분의 치수
* △: 증가될 수 있는 치수

<표 2> 명주 겹철릭 실측표(유물 24) (단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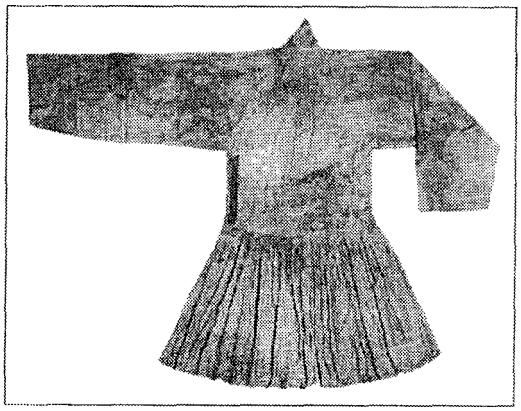
유물 24	S 22(철릭4, 영김18)				특 징	사 진
겉 감	소 재	綿 紬	나 비	34	-상태: 원형(철릭 중 가장 좋은 상태) -고름바대의 골타운문(구름 1쌍 반복) (나비5×길이3cm 정도 추정) -치마 주름 징금선: 허리선 1.8cm 아래	1. 전체 사진 2. 고름 바대
			밀 도	20×25/cm		
안 감	소 재	綿 紬	나 비	29.5		
			밀 도	19×20/cm		
겉 감 색	43.85/+6.86/+21.28 (L/a/b)					

1	뒷길이(외+상)	136.5(74.5+62)	18	안섶길이:내/외(올방향)		24/12.5(올방향)
2	화장(각 폭 나비)	113.5(32+32.5+33+17)	19	안섶나비:상/하		3.5/4.5
3	진동/소매솔기길이/수구	43/39/34/30	20	겉고름바대	형태/소재	璋形/骨朶雲紋紗
4	겨드랑 옆선길이	28			나비/길이	3/앞길27.5, 뒷길28.5
5	뒷품	32	21	겉고름위치	겉섶쪽/간격	겉섶 양끝
6	치마돌레/폭수/주름나비	390△/12폭/0.2(안 0.5)			右腋쪽/간격	뒷길 右腋 바대 양끝
7	허리바대(안):길이/나비	없음	22	겉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1.6/?
8	허리바대(안) 소재	-	23	안 쪽 옆선 바대	형 태	없음
9	깃길이(겉깃+고대+안깃)	135(58+20+57)			나비/길이	-
10	깃나비(내+외)/깃상태	12(6.5+5.5)/솜	24	안고름위치	안 섶 쪽	안깃(안섶쪽)
11	겉깃끝나비(내+외)/길이	8(4+4)/127.5			左腋 쪽	?
12	동정 위치:겉깃끝/안깃끝	30.5/37.5	25	안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1.5(흔적)/?
13	동정 길이/나비	59.5/4	26	어깨 바대	형 태	없음
14	앞품(섶+길)/앞처짐	65(32+33)/4			나비/길이	-
15	겉섶길이:내/외(올방향)	57/27.5(사선)	비고	-깃: 솜 이중깃, 가장자리에 파이핑 효과냄 -안감 좁음. 안쪽 옆선부위에 조각 이음		
16	겉섶나비:상/하	30/32				
17	안섶쪽 주름없는부분	28.5				

* ? : 실측 불가능한 부분의 치수
* △ : 증가될 수 있는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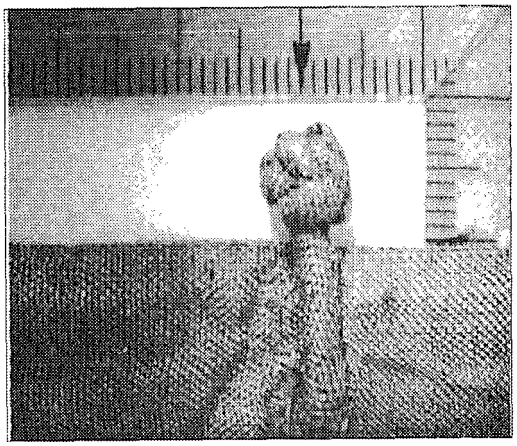
<그림 2> 명주 겹철릭(유물 24) 실측도.



<그림 3> 명주 겹철릭(유물 24).

4) 겨드랑 옆선길이

겨드랑 옆선길이는 조선 전기 袍의 연대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진동선의 연장선으로 겨드랑점에서 치마가 달리는 허리선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 길이는 25~30cm(평균



<그림 4> 좌측 연결용 소매에 달린 숫단추(유물 22).

27.3cm) 정도이다. 본 분묘의 철릭은 12점 모두 ≪악학궤범≫의 철릭과 같은 긴 옆선의 철릭이다. 한편 다른 묘(정응두, 이언웅)의 철릭에서는 겨드랑 부위에 삼각무를 단 것도 발견되었지만[25] 본 묘에서는 삼각무가 달린 것은 한 점도 없었다.

5) 뒷 폭

좌측 겨드랑 옆선상 가장 가는 부위에서 수직으로 내린 뒷중심선까지의 나비를 재었다. 좌측의 실측을 우선으로 하되, 좌측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우측을 실측하였다. 35cm 전후의 옷감인 경우, 옷감 한 폭이 약간 줄어든 치수였는데, 28~33.5cm(평균 31.6cm) 범위였다.

6) 치마둘레/폭수/주름나비

연결된 치마 폭수는 옷감의 나비에 따라 달랐으나 치마둘레가 가장 넓은 〈유물 27〉은 총 14폭(467cm)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계급에 따라 치마 폭 수에 규제가 있었다. 성종 2년(1471)의 진상하는 왕의 帖裏는 14폭을 넘지 않도록 하고[26] 士族은 13폭, 서인은 12폭을 넘기지 말라[27]고 한 규정이 있지만,

25) 朴聖實(1992), p.169, p.280.
26) ≪成宗實錄≫ 卷第十三 十八, 二年辛卯十二月 ○壬申, '…進上表裏及衣劑…(중략)…帖裏毋過十四幅…'
27) ≪成宗實錄≫ 卷第十四 十二 三年壬辰正月 ○己未, '自今士族衣服…(중략)…帖裏毋過十三幅…(중략)…庶人衣服…(중략)…帖裏毋過十二幅…'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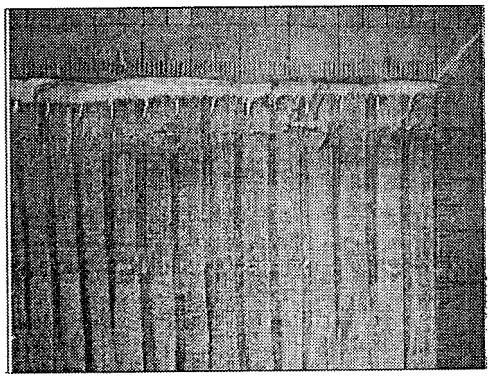
본 분묘에서 출토된 철릭에는 12폭 치마가 4점(유물 24, 25, 29, 31)으로 가장 많았고 13폭 치마가 1점(유물 26), 14폭 치마가 1점(유물 27) 있었다. 12폭의 치마인 경우, 대체로 겉섶 쪽 앞길에 5폭, 뒷길에 5폭, 앞섶 쪽 앞길에 2폭이 사용되었다. 특히 겉섶 자락과 겹쳐지는 안섶 자락의 치마 부분은 거의 한 폭 정도 주름을 잡지 않아서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겹 철릭의 경우, 안감의 주름은 0.5~0.7cm로 잡았으나 겉감의 주름은 0.2~0.3cm 정도로 안감보다 섬세하게 잡았다(그림 5). 촘촘하게 주름을 잡은 1폭은 본래 옷감 나비의 반 이하로 줍아졌다. 주름 잡은 상태의 한 폭을 각각 실측해 보니, 62cm 나비의 옷감은 29cm 정도로, 38cm 나비의 옷감은 15cm로, 36cm는 14cm로, 34cm는 13cm로, 32cm는 12cm 정도로 줄었다.

그리고 가는 주름을 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 허리선에서 1.5~2.5cm 내려온 지점에 고정시침을 하였다. 고정시침은 다른 묘의 철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안쪽으로 바느질하였기 때문에 겉에는 흔적만 나타난다.

7) 허리바대: 길이/나비

홑 철릭인 경우에는 상의와 연결된 치마주름 윗부분의 시접을 감싸면서 상의의 겉감을 보강해 주기 위해 길 안쪽으로 8~9.5cm 나비의 넓은 허리바대를 달았다. 안쪽 허리선에 박아서 상의 쪽으로 꺾어올린 후, 고운 감침질로 바느질하였다. 겉섶 쪽 앞길에서 뒷길을 지나 안섶 쪽 길에 주름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1cm 정도를 지나는 부위까지만 둘렀다. 즉 안섶 쪽의 주름 없는 부분에는 허리바대를 달지 않았다.



<그림 5> 보수하기 위해 펼쳐 놓은 주름 모습(유물 20).

8) 허리바대 소재

홑 철릭에 사용된 허리바대의 옷감은 대부분 겉감과 동일(유물 23, 28, 29, 32)하였으나 겉감보다 못한 다소 거친 것을 사용한 경우(유물 26, 27)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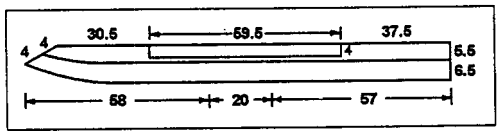
9) 깃길이

깃길이는 깃을 곧게 펴서 일직선으로 잰 길이로서, 겉깃과 고대, 안깃의 세 부분으로 실측하였다. 총길이는 126~135△cm 범위였는데, 한 경우(유물 31)만을 제외하고는 겉깃(평균 57.6cm)이 안깃(평균 52.4cm)보다 길었으며 고대는 20~23cm(평균 20.6cm)였다.

철릭의 깃 형태는 함께 출토된 직령이나 답호의 깃과 동일하다. 겉깃은 '목판형 이중깃'과 '칼형 이중깃' 사이의 단계인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그림 6)'이다. 즉 겉깃 쪽 끝 부분이 겉섶의 가장자리 선과 연장선을 이루는 사선으로 잘리고 겉섶쪽에 얹히는 부위는 곡선 처리되었다. 그리고 안깃은 모두 '목판형'이다.

10) 깃나비/깃 상태

12점 모두 '이중깃'이다. 이중깃이란 깃나비의 중간 정도에 길이 방향의 박음질 선이 들어가서 마치 두 조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깃나비는 내, 외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내측'이란 길 쪽에 연결되는 부분의 나비(그림 6의 6.5cm 부위)이고 '외측'은 깃나비 중심 박음선 바깥쪽 부분의 나비(그림 6의 5.5cm 부위)이다. 깃의 겉감과 안감은 따로 재단하였으며



<그림 6>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유물 24).

겉깃은 이중깃을 만들기 위해 깃나비의 중간 부분을 0.2cm 정도로 접어 고운 홈질로 선을 만들었다. 깃나비는 내, 외를 합하여 12~14cm(평균 cm)이며 내외가 동일한 폭인 경우가 3건(유물 22, 23, 27), 외측이 약간 넓은 경우가 4건(유물 21, 30, 31, 32), 내측이 약간 넓은 경우가 5건(유물 24, 25, 26, 28, 29)으로 나타났다.

깃 상태는 솜 없이 겹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솜을 둔 경우로 구분된다. 홑옷이라도 깃은 겹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솜옷은 깃에도 길과 마찬가지로 솜을 둔다. 그러나 겹옷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겹깃 외에 깃에만 솜을 두는 경우(유물 24, 25)도 있다. 그리고 솜옷이나 깃에 솜을 둔 겹옷은 깃의 외측선을 0.5cm 나비의 도톰한 파이핑 효과를 얻기 위해 상침이나 고운 홈질로 둘러 박았다.

11) 겉깃 끝나비/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겉깃 끝나비'란 겉깃의 끝이 사선으로 잘리어짐에 따라 생성된 깃의 내외측 나비이다. 총나비는 6.5~9.5cm 범위인데 내·외 나비가 같은 경우, 1점(유물 24), 내측이 넓은 것이 1점(유물 11), 외측 나비가 넓은 것이 8점(유물 23, 26, 27, 28, 29, 30, 31, 32)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항목에서의 '길이'란 겉깃 끝의 사선으로 잘려져 다소 짧아진 바깥쪽 깃길이를 말한다. 이 길이 중간에 동정이 달린다. 그 길이는 115~127.5cm(평균 121.9cm)인데 깃의 총길이보다는 4~8cm 정도 짧다.

12) 동정 위치

마포 홑 철릭 5점에는 동정이 없었지만, 나머지 7점, 즉 겹 철릭 3점, 솜 철릭 2점과 광초 홑 철릭 2점에는 綿紬나 紬 소재의 동정이 달려있다. 동정은 고운 홈질이나 세 땀 상침(유물 25) 등으로 고정시켰으며 그 위치는 바깥쪽 깃길이의 겉깃 끝에서부터 26~34cm(평균 30.2cm), 안깃끝에서 20~37.5cm로 떨어져 달려 있었다.

13) 동정 길이/나비

동정길이는 57~76cm(평균 64.4cm)이며 나비는 4~5cm(평균 4.4cm)이다. 〈유물 23〉처럼 두 조각의 옷감을 이어서 동정을 만든 경우도 있다.

14) 앞품/앞처짐

앞품이란 겉섶 쪽 길의 품을 말한다. 이는 길과 섶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길의 나비는 30~33cm 정도로 30cm를 약간 넘는 편이었고 섶의 나비는 28~32cm로 30cm 전후의 나비였다.

즉 길의 나비보다 겉섶 나비가 다소 좁았다. 그리고 요선 장식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앞처짐은 옆선 끝점을 기준으로 그 아래로 내려간 앞섶선의 길이 차이다. 앞처짐 때문에 치마가 자연스럽게 둥글려 달렸다. 앞처짐의 길이는 1~4cm(평균 3cm)였다.

15) 겉섶길이(올방향)

철릭에는 겉섶이 한 조각 달려 있다. 단령이나 직령, 답호에서는 두 조각의 섶이 달린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내측이란 길과 연결된 앞중심선 부위의 길이로, 실측 가능한 5점의 길이가 41~57cm(평균 48.5cm)이다. 외측은 바깥쪽 고름 달리는 부위의 길이로, 실측 가능한 5점의 길이가 24.5~36cm(평균 28.7cm)이다. 〈유물 24, 26, 27, 29, 30, 31〉은 외측선의 올방향이 사선 재단으로 확인되었다. 단령이나 직령, 답호와 동일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16) 겉섶나비: 상/하

겉섶의 위, 아래의 폭으로, 섶의 외측 길이 양 끝점에서 앞중심선에 수직으로 내린 길이이다. 치수가 정확한 6점의 上은 24~30cm(평균 27.4cm)이고 下는 28~32cm(평균 30.3cm) 범위이다.

17) 안섶 쪽 주름 없는 부위

철릭의 치마 주름은 안섶 쪽에는 주름이 없다. 앞길의 주름과 겹쳐지면 외관상 좋지 않으므로 주름을 없애서 미적 효과를 높혔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옷감 한 폭이 약간 안되는 나비에 주름이 잡혀있지 않다. 25.5~33cm 정도로 나타났다.

18) 안섶길이(올방향)

겉섶의 측정 요령과 같다. 안섶도 겉섶과 마찬가지로 한 조각이 달렸다. 내측보다는 외측이 짧은데, 내측 길이는 19~27cm, 외측 길이는 12.5~29cm의 범위로 나타났다. 안섶 외측선의 올 방향은 겉섶의 경우와는 달리, 12점 중 7점이 올 방향으로 재단되었다. 단령이나 직령, 답호에서 모두 사선으로 재단되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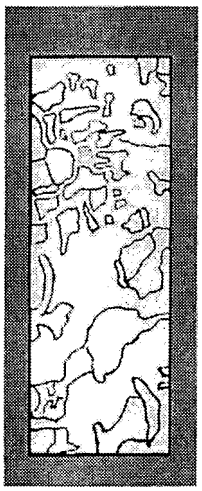
19) 안섶나비

안섶은 길이나 나비에 있어서 겉섶보다는 훨씬 적다. 위쪽의 나비, 즉 上은 3~5.5cm로, 下는 5~8.5cm로 나타났다.

20) 겉고름바대

고름바대는 고름을 달기 위한 지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전기 포류에서 흔히 나타난다. 철릭의 고름바대 형태는 겉섶 끝의 겉에 붙이는 경우와 안에 붙이는 형이 확인된다. 안쪽에 겉감이나 別布를 댄 '안단형' 바대와 겉에 부착시켰어도 0.5cm 정도로 만든 좁은 바대는 단지 실용성만을 지니고 있는 듯, 소박한 편이다. 겉섶 쪽의 바대 위치는 깃 아래로부터 허리선까지 달되, 바대의 길이는 옆선 길이와 거의 같거나 다소 짧게 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30cm 내외이다. 오른쪽 겨드랑이 쪽의 고름바대는 실측도(그림 2)에서 확인되듯이, 옆솔기 뒷쪽으로 단다.

철릭의 고름바대는 단령이나 직령, 답호의 고름바대에 비해 장식적인 경우가 있다. 겉에 부착한 3cm 정도의 넓은 고름바대는 金線(유물 22)(그림 7)이나 雲紋紗(유물 24)(그림 8), 七寶雲紋緞(유물 21, 25)(그림 9), 無紋紗(유물 31) 등 고급 직물을 사용하여 장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중종 25년(1530), 常時에 戎服에 金線으로 入雀을 만들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기록[28]이 있다. 注에 方言인 '입작'은 고름장식[衣紐飾]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금선 등으로 제작한 고름바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금선과 같은 화려한 직물의 넓은 고름바대 장식이 있는 것은 일단 융복용 철릭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7> 金線 一字形 고름바대(유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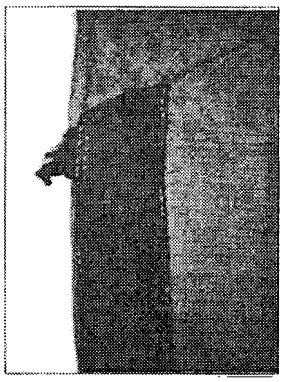
장식적인 고름바대의 위쪽 머리부분을 처리한 모양도 다양하다. 단순한 一字形(유물 21, 22)으로 처리한 것도 있으나 璋形(유물 24)(그림 8)[29]이나 圭形(유물 25)(그림 9)으로 접어서 처리한 것을 볼 수도 있다. 특히 장형 고름바대의 사선 기울기는 둥글린 깃선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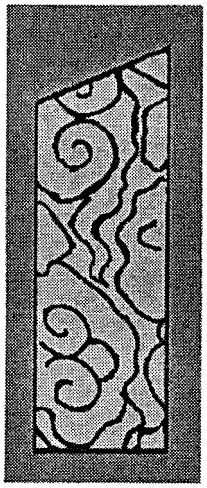
21) 겉고름 위치

겉고름은 고름바대의 길이에 준해서 양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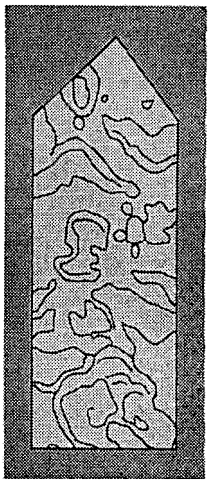
28) ≪中宗實錄≫ 卷六十七 三十六, 二十五年庚寅二月 ○甲申 '…常時於戎服見之 以金線爲入雀「入雀者 方言也 衣紐飾也」此謬不可爲者也…'

29) ≪三才圖會≫ 器用二卷 二十七 ○赤璋 '周禮赤璋禮南方半圭曰璋形'





<그림 8> 雲紋紗 璋形 고름바대(유물 24).



<그림 9> 七寶紋緞 圭形 고름바대(유물 25).

끼워 다는데, 대부분 두 쌍의 고름을 달았다. 그러나 〈유물 22〉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대의 중간 정도에 쌍밀이형 끈으로 만든 고리가 하나 남아 있다. 정옹두나 홍계강 등의 묘에서도 쌍밀이형 끈으로 철릭 반소매의 매듭단추를 만든 경우도 확인된 바 있다. 고름바대의 양끝에는 고리가 달렸던 구멍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쌍의 '간접부착형' 고름이나 매듭단추가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22) 겉고름형/나비/길이

철릭의 겉고름형은 다른 포류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로 분류되었다. 즉 바대에 직접 끼워 다는 직접부착형이 6점 있고 고리에 연결하여 고름을 다는 간접부착형 2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물 31〉에는 유일하게 앞길 겉섶쪽과 오른쪽 겨드랑 옆솔기 뒷쪽에 하나씩 '직접부착형' 고름이 남았는데, 접어서 겹바느질한 겹고름이며 요즈음의 고름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아래 쪽으로 시접을 두었다. 그 크기는 2.7×27cm이다.

23) 옆선바대

홑 철릭인 경우, 좌우 옆솔기 안쪽으로 바이어스(유물 23, 27, 30, 32)나 올방향(유물 22, 26, 29)으로 재단된 직사각형의 긴 바대가 시접을 덮도록 바느질되어 있다. 길이는 겨드랑이를 넘어 소매 쪽부터 시작하여 허리바대가 달린 부분에서

1cm 정도까지 내려 달린다. 19~27cm 정도의 길이에, 폭은 1~7cm 범위로 다양하다. 그리고 옆선바대를 먼저 단 후에 허리바대를 달았다.

24) 안고름위치

안고름은 안깃 끝 모서리나 안깃나비의 중앙 또는 안섶과 안깃이 연결되는 부위 등에 겉고름 하나가 달렸고 반대쪽으로는 허리선에서 14~16cm 올라온 오른쪽 겨드랑이 옆선바대에 나머지 하나가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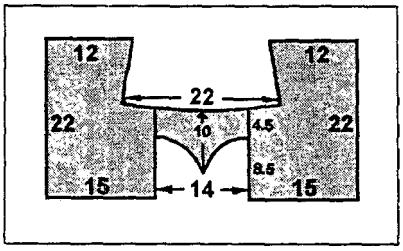
25) 안고름형/나비/길이

안고름은 직접부착형이 많지만 〈유물 23〉과 같이 드물게 간접부착형인 경우도 있다. 안고름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겉고름과 거의 같거나 다소 작을 것으로 생각되며 완성된 고름나비는 바느질 흔적 등으로 보아 1.2~1.5cm 정도로 추정된다.

26) 어깨바대

어깨바대는 다른 옷에서와 마찬가지로 홑 철릭에서만 사용되었는데, 함께 출토된 단령과 직령에는 U자형의 어깨바대만 단 것과는 달리, 다양한 어깨바대가 사용되었다. 즉 U자형 세 점(유물 23, 26, 27)과 凹자형 세 점(유물 29, 30, 32), H자형(그림 10)[30] 한 점(유물 22)이 확인되었다.

U자형의 나비는 30cm 내외였으며 길이는 20~25cm였다. 凹자형 세 점은 모두 두 색의 마포를 사용하여 만든 철릭에 사용되었다. 이 형은 두 폭을 이어서 53.5~55cm로 넓게 만들어서 겨의 양쪽 진동선에 이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길이는 16.5~20.5cm로 나타났다. 특히 임란 후에는 보이지 않는 H자형 어깨바대는 U자형과 凹자형의 중간 정도의 길이인 44cm 나비에 앞뒤 길이는 22cm였다. 그리고 철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옷에서도 어깨바대 바느질 중 가로방향의 솔기나 H자형 바대 중앙의 삼각형 부분에는 곱게 감침질 등으로 길에 고정시켰지만 바대의 양쪽 가장자리인 세로 방향의 솔기는 길에 고정되지 않았다.



<그림 10> H자형 어깨바대(유물 22).

Ⅳ. 결 론

이상으로 조선 전기의 철릭 유물의 일반적인 형태와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고, 김홍조(1461-1528) 묘에서 출토된 철릭 12점을 중심으로 16세기 전기의 철릭 구성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악학궤범≫의 도상이나 조선 전기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조선 전기 철릭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 본 결과, 철릭의 길이와 상하 비율은 선조 원년(1567)을 전후하여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에 온 중국 사신의 복장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초기의 衣長 裳短形 형태가 衣短 裳長形 형태로 전환되어 그 비율이 1.2 : 1에서 1570~80년대의 1:1을 거쳐 임란 당시에는 거의 1:1.2의 형태로 역전되었다. 소매 역시 초기에는 착수형 筒袖였으나 1570~80년대는 통수와 두리소매가 공존하였고 1590년대 임란 당시에는 다시 窄袖形 筒袖로 전환되었다.

깃은 '목판형 이중깃'에서 '예각 반목판형 이중깃', '칼형 이중깃', '칼형 단일깃(칼깃)'으로 발전되어 갔으며 고름은 오른쪽 겨드랑 부위에 매었는데, 크기가 작은 소형 고름으로 옆선 길이 상하에 맺을 수 있는 '직접부착형'이나 '간접부착형'의 두 쌍 고름이 일반적이었다. 철릭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옆선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고름이 달리는 상하 간격이 점차 좁아졌고 그 결과, 조선 후기와 같은 한 쌍 고름이 등장했다. 그리고 고름바

30) 이은주(1998b), *ibid.*, p.259 참조. H자형 어깨바대란 어깨 양끝으로 직사각형 두 조각에 고대를 중심으로 한 가운데 부분을 곡선으로 뾰족하게 처리한 삼각형의 조각을 삽입하여 세조각으로 구성한 어깨바대를 말한다. 고려시대 문수사 담호나 해인사 도포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에는 금선 등의 고급 직물이 사용되었던 장식적인 철릭이 있었는데 이는 융복에 사용되었던 '入雀'이라는 고름장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철릭의 종류로 '한철릭'과 '요선철릭'도 있었는데 한철릭은 속에 입는 소매가 긴 철릭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요선철릭은 허리에 장식선이 있는 철릭으로, 제 천을 접어서 요선을 만드는 경우와 다른 색의 옷감이나 장식선 등을 이용하여 요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掌隸院 判決事(정3품) 金欽祖(1461~1528) 묘에서 출토된 12점의 철릭은 형태상의 특징으로 볼 때, 조선 전기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의 것에 해당한다. ≪樂學軌範≫의 圖像에서 확인되는 철릭의 형태와 유사하였다.

單, 袷, 襦 철릭이 확인되었으나 누비는 없었다. 겹이나 솜철릭에는 주로 고운 홈질 방법이, 홑철릭에는 쌈솔과 박음질을 비롯하여 다양한 바느질법이 활용되었다. 겹철릭과 솜철릭에 한지를 심지로 사용한 경우가 각각 한 점씩 확인되었다. 사용된 소재는 廣紬, 絲綿交織, 綿紬, 綿布, 麻布였으며, 특히 마포 중에는 두 색의 마포를 부위별로 사용하여 색다른 디자인 감각을 발휘한 것도 있었다. 문헌상으로 당시 당상관은 홍색 융복용 철릭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으나 유물의 색상은 12점 모두 갈변 상태여서 홍색 철릭의 구분은 불가능했다. 뒷길이는 130cm 내외의 긴 길이에 1.2:1의 비율을 지닌 衣長 裳短形 철릭이었다. 함께 출토된 단령이나 답호, 직령보다는 짧은 길이이므로 연산군대의 길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깃은 '예각 반목판형 이중깃'이었으며 솜을 둔 깃에는 가장자리에 상침이나 고운 홈질로 0.5cm 정도의 파이핑 효과를 냈다. 안깃은 목판형이었으며 동정의 크기는 평균 64.4×4.4cm로, 겉깃 끝에서 평균 30cm 정도 떨어져 달렸다.

소매는 착수형의 통수였다. 반수형 철릭은 한 점만이 확인되었는데, 소매 둘레에 매듭단추 6개를 사용하여 연결용 소매를 반소매 안으로 끼워 넣어 연결시키는 방식이었다. 반소매 둘레에는 암단추를, 연결용 소매에는 숫단추를 달았다. 겨드랑 길이는 27.3cm 정도로 초기의 철릭답게 긴 편이었다. 다른 묘의 철릭에서 확인되는 겨드랑 부위의 삼각무는 전혀 없었다.

치마 폭수는 12~14폭으로 확인되었으며 옷감 나비에 따라 연결된 폭수가 달랐다. 가장 많은 폭을 연결시킨 14폭 치마의 둘레는 467cm였다. 치마 주름은 겉감에는 0.2cm 정도로 섬세하게 잡은 반면, 안감에는 0.5~0.7cm 정도로 다소 성글게 잡았다. 그리고 주름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허리선에서 1.5~2.5cm 아래에 고정 시침을 하였다. 겉섶쪽 앞길과 겹쳐지는 안섶 쪽 앞길에는 주름을 잡지 않아서 겹쳐졌을 때의 미적 효과를 배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홑 철릭인 경우에는 치마 주름 시접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겉감과 동일한 소재나 다소 거친 소재를 사용하여 앞뒷길의 허리선 안쪽에 허리바대를 대었는데 그 나비는 8~9.5cm 정도였고 길이는 겉섶 쪽 끝에서부터 안섶 쪽 주름잡지 않은 부분까지의 길이였다.

겉섶의 올방향은 현재 저고리의 겉섶 재단방식과 동일하였다. 안섶은 함께 출토된 단령이나 직령, 답호의 안섶 재단은 사선 재단이었던 것에 비해 안섶은 곧은 올 재단이었다.

고름바대는 겉섶 가장자리와 오른쪽 겨드랑 옆솔기 뒷쪽에 고름을 고정시키기 위해 달았는데, 겉섶에는 겉에 다는 형과 안에 다는 안단형으로 구분되었다. 안단형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로 제천으로 달았으며 겉단형은 다시 0.5cm 나비의 좁은 일자형과 3cm 이상의 고급소재를 이용한 장식적인 바대가 확인되었다. 이 장식이 융복에 사용되었던 '入雀'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金線과 雲紋紗, 七寶雲紋緞, 無紋紗 등 네 점이 확인되었다. 머리부분은 처리된 모양에 따라 一字形과 璋形, 圭形으로 분류되었다. 고름은 간접부착방식과 직접부착방식으로 달리되, 간접부착방식은 두 점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름 갯수는 세 쌍 고름이 1점 뿐이고 나머지 11점은 모두 두 쌍 고름을 달았다. 남아있는 고름의 크기는 2.7×27cm 정도였다. 안고름은 안깃 모서리 주변과 왼쪽 겨드랑 안쪽 옆선상에 달았는데 한쌍 고름이되, 대부분 직접부착형이지만 간접부착형 방식도 1점 확인되었다.

홑철릭인 경우에는 좌우 겨드랑 안쪽에 옆선바

대를 댔으며 어깨바대는 'U자형'과 '凹字形', 'H자형'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구성법의 제시는 추후 시도되는 다른 관련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문헌 연구만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귀중한 실증적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통복식의 구성 자료들이 축척되어 유물 복원이나 고증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자료로 활용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三才圖會≫

≪宣祖修正實錄≫

≪宣祖實錄≫

≪成宗實錄≫

≪世祖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增補文獻備考≫

姜淳弟, '帖裏小考',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2호, 1981, pp. 131-179.

金美子, '元의 軍服 · 戎服에 관한 硏究', ≪學藝誌≫ 第4輯,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pp. 149-173.

金宣伶, '중국의 철릭에 관한 연구: 元 · 明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정자, '帖裏考', 服飾 第8號, 1984, pp. 57-68.

金贊珠, '철릭에 關한 服飾史的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문명희, '帖裏'에 關한 硏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壬辰倭亂 以前時期를 中心으로', 世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徐希媛, '철릭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榮州市 編,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1998.

오창명,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 表記 硏究(1)', ≪韓國服飾≫ 15, 1997, pp. 29-64.

이은주,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12(3), 1988, pp. 363-371.

이은주,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韓國衣類學會誌≫ 13(4), 1989, pp. 319-329.

이은주,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金欽祖(1461~1528) 분묘 출토의 단령을 중심으로', ≪服飾文化硏究≫ 제6권 제2호, 1998, pp. 127-140.

이은주, 李仁孫(1477~1543)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古文化≫ 第52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98, pp. 107-122.

李恩珠,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 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장인우, '조선시대 첩리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997, pp. 389-400.